

이태훈 논술

{유형 분석 → 기출 분석 → how to write}

경희대 인문 CORE



Just Memo

[개요] 경희대 인문



시험지 구성

1. 120분 / 2문항 / 2,000자
2. 문제 유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 1 (800~900자)	평가
문제 2 (1,000~1,100자)	입장 분류 + 평가

특징

1. 분량이 깊 → 동어 반복이 아니다. 논리의 **다각화, 입체화**가 핵심이다.
2. 예시 답안이 충실함 → 예시 답안 포맷에 맞추어 연습
3. 타 학교보다 **논리적 여유 폭이 넓고** 수험생에게 **해석의 자율성**이 많이 주어진다.

최근 경향

1. 22년부터 현재 구조로 굳어짐.
2. 25년 모의에 '양면 평가' 출제.

문제

문제 1. [가]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입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801자 이상~900자 이하: 배점 40점]

문제 2. [라]~[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 중 한 입장을 선택해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1,001자 이상~1,100자 이하: 배점 60점]

제시문

[가] 정말 레이첼은 흥미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는 것뿐일까?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단지 놀이에 불과한 걸까?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프림 빌리지를 위해서도 아닌, 단지 자연을 대상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일까. 지수는 여전히 레이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냥 만들 수 있어서. 흥미로운 특성을 발견해서.”

레이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간단하게 말했다.

“그리고 지수 네가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했어. 하지만 숲에 심는 건 안 돼. 프림 빌리지는 이게 없어도, 지금도 괜찮잖아. 이런 식물이 있다고 보여주려고 했을 뿐이야.”

그렇게 말하는 레이첼을 보니, 지수는 뭐라고 더 불만을 표하려던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다. 예전에 레이첼의 식물들이 생각만큼 잘 작동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에, 지수는 일단 기대를 잠재웠다. 인류가 간절히 찾고 있는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다기에는 상자 속 식물들은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다.

그 손바닥만 한 잎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레이첼이 갑자기 실험실의 불을 켜다.

“갑자기 불은 왜?”

지수는 레이첼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가 모스바나가 담긴 상자 하나를 가리켰다. 지수는 상자를 다시 보았고, 눈앞의 장면을 보고 입을 벌렸다.

푸른빛이 상자 안에 가득 차 있었다. 먼지처럼 흩날리기도 하고, 토양이 빛을 머금은 것처럼 빛나기도 했다. 어떤 상자에서는 아주 색이 짙었고, 또 어떤 상자에서는 색이 거의 없거나 열었다. 지수가 그것을 보며 가장 먼저 한 생각은 아름답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지수는 그 푸른빛이 뜻하는 의미를 생각했다.

“더스트를 제거할 때 생기는 빛이겠지?”

레이첼은 상자를 보더니 말했다.

“아니, 그 빛에는 아무 기능이 없어.”

뜻밖의 대답이었다.

“여러 번 시험해 봤지만 응집이나 제거 현상과는 무관하게 나타나. 개량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었어. 독립적인, 불필요한 돌연변이. 아마도 비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와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기 중의 특정 분자와 반응해서 발광성 부산물이 생성돼. 그게 흙이나 먼지 입자에 달라붙지. 간단한 유전자 조작으로 특성을 없앨 수 있어. 쓸데없이 시선을 끄는 특성이니까 제거할 생각이야.”

“그렇구나. 불필요한 돌연변이라니…….”

불을 켜 생각도 않고, 지수는 한참이나 상자 속의 푸른빛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아름답네.”

그렇게 말하는 지수를 레이첼이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모스바나를 당장 심게 해 달라는 지수의 부탁을 레이첼은 거절했다. 그것이 숲을 일단 잠식하고 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수는 레이첼이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진짜 이유는, 레이첼이 숲을 실험실로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레이첼이 원하는 건 어디까지나 더 많은 식물들을 실험해 보는 것이고, 그러니 자신의 실험실이기도 한 프리밍 빌리지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중략)

지수는 밤새도록 바위에 앉아서, 숲을 가득 채운 푸른 먼지들을 보았다. 아름다운 외에는 아무 기능이 없는, 그러나 결국 제거되지 않은 푸른빛들을.

[나] 절망을 노래하고파서

오늘 버림을 당하고파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파서

떠나자, 미련없이 떠나자.

폭력으로부터 떠나자

말의 횡포로부터 떠나자

약속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가풍(家風)으로부터 떠나자

거짓 경제로부터, 거짓 학문으로부터

거짓 기교로부터

거짓 문학으로부터 떠나자.

떠나서 소곤거리자

소리가 모여 소리를 날고

절망이 모여 절망을 날고

버림이 모여 버림을 날으면서

빈몸으로 덩굴자

알몸끼리만 어울리자.

소리가 모여 정치를 날고

절망이 모여 사랑을 날고

버림이 모여 만남을 날을 때까지.

[다] 지난번에 이학규(李學逵)의 시를 읽어 보았다. 그가 너의 시를 논평한 것은 잘못을 잘 지적하였으니 너는 당연히 수긍해야 한다. 그가 지은 시 중에 좋은 것이 더러 있기는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바는 아니었다. 오늘날 시는 마땅히 두보(杜甫)의 시를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모든 시인들의 시 중에서 두보의 시가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경(詩經)』에 있는 삼백 편의 의미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경』에 있는 모든 시는 충신, 효자, 열녀 그리고 진실한 벗들의 간절한 마음의 발로이다.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내용이 아니면 그런 시는 시가 아니고,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을 분개하는 내용이 아니면 그런 시는 시가 될 수 없으며,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 하고 미운 것을 밉다 하며,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뜻이 담기지 않은 시는 시라고 할 수 없다. 부자(父子)나 군신(君臣), 부부의 떳떳한 도리를 밝히려는 마음과, 세상을 걱정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겨 항상 힘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고 재산 없는 사람을 구제해 주고자, 마음이 흔들리고 가슴 아파서 차마 그냥 두지 못하는 그런 간절한 뜻을 가져야 바야흐로 시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음풍농월하면서 술 먹는 이야기나 유희소리거나 자기 자신의 이해에만 연연하는 시라면 그것을 어찌 시라고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뜻이 세워져 있지 않고 학문은 설익었으며 삶의 큰 도를 아직 배우지 못하고 위정자를 도와 민중에게 혜택을 주려는 마음가짐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시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니, 너도 그 점에 힘쓰기를 바란다.

[라] 심본 양보해서,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 즉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미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은 예술 작품의 중요한 의미이다.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을 보고 감동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도 예술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창의적이라고 평가해 준 건 결국 사람이다. 인공지능 스스로는 그게 새로운지 모른다. 인간만이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을 보며 “와, 이거 새롭다!”라고 한다.

인공지능은 미적 가치를 평가하지 못한다. 자신이 탄생시킨 작품이나 화풍에 대해 생각을 품지도 못하고 자기 작품을 감상하지도 못한다. 인간 예술가는 다르다. 자신이 그린 작품 중 전시회에 걸고 싶은 작품 10개를 고르라고 하면 잘 골라낸다. 이건 좋다, 이건 별로다, 이건 왜 그랬다 등 이유를 대면서 스스로 평가한다. 인공지능은 자기 작품은 물론 다른 작품도 평가하지 못한다. 인공지능에게 미술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작품 중에 어떤 것을 좋아하며, 왜 좋은지 10개만 꼽아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미술사 속 작품뿐 아니라 동시대에 창작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 작업은 불가능하다. 원리상 인공지능은 평가 기준을 자기 바깥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인간이 준 것이다.

인공지능은 예술가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의 작품은 작가가 그 안에서 자기 의도에 도달할 때 만족된다.”라는 램브란트의 말을 참조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어떤 작가라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말이라. 미술사가 고프리치는 이 구절과 관련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됐다고 판단할 권리는 화가에게 있다.”라고 적절하게 해석한다. 작품에 서명하기 전에 작가는 충분히 숙고한다. 서명의 순간은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 즉 작품이 완성됐다고 작가가 승인하는 순간이다. 이 순간에 주목하면 그 어떤 예술 작품이건 작가의 평가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작품을 완성하는 건 작가의 권리다.

[마] 현대 세계에서 예술은 보통 인간의 감정과 결부되어 있다. 우리는 예술가의 역할이 우리 내부의 정신적 힘들을 연결하는 것이고, 예술의 모든 목적은 우리를 서로 간의 감정으로 연결하거나 우리 내면에 어떤 새로운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다 보니 예술을 평가할 때도 그것이 청중에게 미치는 감정적 영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예술이 인간의 감정에 의해 규정된다고 했을 때, 외부 알고리즘이 인간의 감정을 세익스피어나 프리다 칼로*, 혹은 비운세**보다 더 잘 이해하고 조종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국 감정이란 것도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다. 생화학적 과정의 결과물일 뿐이다. 따라서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기계 학습 알고리즘은 우리 몸의 겉과 내부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실시간 전달되는 생체 측정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별 성격 유형과 바뀌는 기분을 알아낸 후 특정한 노래가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 영향을 미칠지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형식의 예술 중에서도 특히 음악이 빅데이터 분석에 가장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입력과 산출을 정확히 수학적으로 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력은 음파의 수학적 패턴이고 산출은 신경에서 일어나는 폭풍의 전기화학적 패턴이다. 수십 년 내에 기계 알고리즘이 수백만 가지 음악을 섭렵하고 나면, 어떤 노래를 입력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예측하는 법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중략)

맞춤 예술은 결코 인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두가 좋아하는 공통의 히트곡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당신밖에 모르는 곡에 맞춰 함께 춤추고 노래할 수 있겠는가? 사실 알고리즘은 맞춤 제작한 희귀곡보다 세계적인 히트곡을 만드는 데 적응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수집된 막대한 생체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무도장에서 모두가 미친 듯 몸을 흔들게 하는 글로벌 히트곡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의 본질이 정말 인간의 감정을 고양하거나 조작하는 것이라면, 그런 능력을 가진 알고리즘과 인간 뮤지션이 경쟁할 가능성은 없거나 희박할 것이다. 인간의 생화학 체계를 이해하는 능력에서 인간은 알고리즘을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아름다움이 실제로는 청중의 귀에 있다면, 그리고 고객이 언제나 옳다면, 생체 측정 알고리즘은 빼어난 예술 작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단지 예술 시장에 진입해서 많은 인간 작곡가와 연주자를 대체하는 것이 목표라면, 알고리즘은 곧장 차이코프스키를 추월할 필요는 없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능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 프리다 칼로: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화가.

** 비운세, 브리트니 스피어스: 미국 출신의 대중가수.

[바] “부탁이 있습니다. 작가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창작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짜낼 것이 없는데 짜내려고 하면 힘만 들죠.” (중략)

“그런가요?”

“모래를 생각해도 좋아요. 모래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래를 짚을 때 액이 나온다면 그것은 모래 자체에 들어 있던 물이 아니라 모래 사이에 끼어 있던 이물질입니다. 어제 내린 빗물이거나 밤 사이에 밀려왔다가 바다로 다시 돌아가지 못해서 남은 바닷물인 거죠. 모래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이죠.”

“그래서요?”

“작가님! 일을 하시는 것으로 자신을 적당하게 볶는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오일을 짜기 위해서.”

“저는 차라리 모래라고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모래라는 말을 꺼냈다고 해서 모래라는 말에 너무 자괴감을 받지 마세요. 모래는 거르는 존재입니다. 잔모래는 작은 찌꺼기까지 거르고 굵은 모래는 빠른 시간 안에 큰 찌꺼기만 거르죠. 짜낼 게 없을 때는 걸러 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하고 하신 일이 그런 종류 아니었습니까? 화산 지형을 통과한 빗물이 해안에 모이면 얼마나 맑은 물로 변해 있습니까. 모래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읽은 소설은 모두 시가 썼다는 거죠?”

“시가 어디에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명령을 내리는데, 명령을 내리면 결과가 오니 참 신기하고 미칠 일이죠.”

“제가 계속 일을 한다면 시가 뺄어 내는 찌꺼기를 걸러 내는 것이죠? 창의력 없이?”

“작가님을 실망시키려고 했던 말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태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수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작가님은.”

“그게 제 역할의 최대치라는 거죠? 모래 같은 인간, 정수기 같은 인간.”

“작가들은 시와 독자를 연결하는 메신저가 되는 거죠. AI에게는 변별 능력이 없으니까, 당분간 수많은 것 중에서 나쁜 것을 걸러 내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좋은 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고, 의미가 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래를 짜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자신을 좀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주어진 일을 능력 안에서 해내는 거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요.”

[사] 연하장은 어떤가? 통상적인 조의문은 어떤가? 그런 인사장들도 정서를 표현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주 일반적인 정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로 제작되고 팔릴 수 있는 것이다. 인사장과 같은 것에는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슬픔을 느끼고 또 받은 사람들도 슬픔을 느낀다 해도, 우리는 대부분 그것들을 예술 작품이라고 부르기를 망설일 것이다. 왜 그런가? 그것들이 전달하는 정서가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낭만주의자들은 개인적 경험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데 높은 가치를 둔다. 그러나 인사장이 전달하는 정서적 경험은 개별화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우리는 예술가에게 판에 박히지 않은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말할 것을 기대한다. 예술 작품은 예술가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개별화된 정서를 관객에게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예술가는 그냥 정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서를 스스로 검사한다. 예술가의 감정 상태는 초상화를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델과 같다. 예술가는 그것의 질감과 윤곽을 찾아내려고 고심한다. 예술가가 자기의 감정 상태를 반영할 때 그의 활동은 통제된다. 그는 그 감정 상태를 신중하게 탐색하고 그것을 표현할 적합한 언어, 색, 소리를 찾아내려고 한다. 만일 예술가가 시인이라면 그는 먼저 한 단어를 고른 후에도 그가 느끼는 바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단어가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것이다. 예술 작품을 제작하는 것은 분출이나 표출, 소리 지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명료화 과정이다. 무용가는 여러 동작들을 결합할 것이고 화가는 가장 어울리는 붓놀림으로 도화지를 물들일 것이다. 작곡가는 여러 가지 선율을 결합한 후 뒤로 물러서서 그것들이 적절한지를 물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예술가의 정서를 명료하게 하는 동시에, 그 정서는 예술가의 선택에 영감을 주고 또 정보를 제공한다.

작성 Tip

1. 개요

1) 글 구성

1문단 300자	(다) 요약
2문단 300자	(다) -> (가) 평가
3문단 300자	(다) -> (나) 평가

2) 세 제시문을 관통하는 논점, **대논점**을 추출해야 일관된 글을 쓸 수 있다!

3) 양면 평가(부분 긍정 / 부분 부정)의 가능성을 잊지 말자.

2. 1문단(기준 제시문 요약)

1) 문단이 길수록 첫 문장은 간명해야 한다. 두괄식, 간결체를 잊지 말 것.

2) 요약의 분량이 길다. 그러나 단순하게 디테일들을 '나열'하면 안 된다. 차후에 사용할 논거들을 미리, 다각도로 build-up해 두어야 한다. 따라서 (다)만 읽고 (다)를 요약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다)의 논의가 (가, 나)와 연결될 지점을 미리 도출하고 요약을 시작해야 한다.

3. 2, 3문단(평가)

문단 전개

1단계 : 평가값 제시

2단계 : 피평가 제시문 요약

3단계 : 기준 제시문과의 일치/대조 point 부각 → 일치할 경우 긍정적 뉘앙스로 서술, 대조될 경우 부정적 뉘앙스 강조.

4단계 : 평가 → All-in-one 평가 문장을 기억하자(A는 B를 C라는 점에서 T/F한다)

기출 분석 문제 1

발문 분석

문제 1.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입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801자 이상~900자 이하: 배점 40점]

▶ 두 가지를 기계적으로 떠올리지.

- 1) 세 제시문을 관통하는 논점. 즉 대논점은 무엇일까?
- 2) 300/300/300으로 써야겠다.

제시문 분석

①[다] 지난번에 이학규(李學逵)의 시를 읽어 보았다. 그가 너의 시를 논평한 것은 잘못을 잘 지적하였으니 너는 당연히 수긍해야 한다. 그가 지은 시 중에 좋은 것이 더러 있기는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바는 아니었다. 오늘날 시는 마땅히 두보(杜甫)의 시를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모든 시인들의 시 중에서 두보의 시가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경(詩經)』에 있는 삼백 편 의미의 의미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경』에 있는 모든 시는 충신, 효자, 열녀 그리고 진실한 벗들의 간절한 마음의 발로이다. ②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내용이 아니면 그런 시는 시가 아니고,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을 분개하는 내용이 아니면 그런 시는 시가 될 수 없으며,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 하고 미운 것을 밉다 하며,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뜻이 담기지 않은 시는 시라고 할 수 없다. 부자(父子)나 군신(君臣), 부부의 떳떳한 도리를 밝히려는 마음과, 세상을 걱정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겨 항상 힘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고 재산 없는 사람을 구제해 주고자, 마음이 흔들리고 가슴 아파서 차마 그냥 두지 못하는 그런 간절한 뜻을 가져야 바야흐로 시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③음풍농월하면서 술 먹는 이야기나 율조리거나 자기 자신의 이해에만 연연하는 시라면 그것을 어찌 시라고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뜻이 세워져 있지 않고 학문은 설익었으며 삶의 큰 도를 아직 배우지 못하고 위정자를 도와 민중에게 혜택을 주려는 마음가짐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시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니, 너도 그 점에 힘쓰기를 바란다.

▶ [다]는 시의 본질을 감정적 기교가 아닌, 시대적 고통을 감싸는 윤리적 실천으로 본다.

[가] 정말 레이첼은 흥미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는 것뿐일까?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단지 놀이에 불과한 걸까?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프림 빌리지를 위해서도 아닌, 단지 자연을 대상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일까. 지수는 여전히 레이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④그냥 만들 수 있어서. 흥미로운 특성을 발견해서.”

레이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간단하게 말했다.

“그리고 지수 네가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했어. 하지만 숲에 심는 건 안 돼. 프림 빌리지는 이게 없어도, 지금도 괜찮잖아. 이런 식물이 있다고 보여주려고 했을 뿐이야.”

그렇게 말하는 레이첼을 보니, 지수는 뭐라고 더 불만을 표하려던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다. 예전에 레이첼의 식물들이 생각만큼 잘 작동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에, 지수는 일단 기대를 잠재웠다. 인류가 간절히 찾고 있는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다기에는 상자 속 식물들은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다.

그 손바닥만 한 잎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레이첼이 갑자기 실험실의 불을 끄다.

Note

Note ①

습관적으로 (가)부터 읽지 말자.
기준 제시문인 (다)부터 읽자.

Note ②

시의 사회적 의미, 윤리적 기능,
현실 고통에 대한 응답을 강조한다.

Note ③

사회적 기능을 하지 않고 개인적
유희에 머무는 시를 비판하고 있다.

Note ④

레이첼의 창작 동기를 ‘순수한
실험적 유희’로 표현할 수 있다.

“갑자기 불은 왜?”

지수는 레이첼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가 모스바나가 담긴 상자 하나를 가리켰다. 지수는 상자를 다시 보았고, 눈앞의 장면을 보고 입을 벌렸다.

푸른빛이 상자 안에 가득 차 있었다. 먼지처럼 흩날리기도 하고, 토양이 빛을 머금은 것처럼 빛나기도 했다. 어떤 상자에서는 아주 색이 짙었고, 또 어떤 상자에서는 색이 거의 없거나 옅었다. 지수가 그것을 보며 가장 먼저 한 생각은 아름답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지수는 그 푸른빛이 뜻하는 의미를 생각했다.

“더스트를 제거할 때 생기는 빛이겠지?”

레이첼은 상자를 보더니 말했다.

“아니, ㉔그 빛에는 아무 기능이 없어.”

뜻밖의 대답이었다.

“여러 번 시험해 봤지만 응집이나 제거 현상과는 무관하게 나타나. 개량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었어. 중립적인, 불필요한 돌연변이. 아마도 비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와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기 중의 특정 분자와 반응해서 발광성 부산물이 생성돼. 그게 흙이나 먼지 입자에 달라붙지. 간단한 유전자 조작으로 특성을 없앨 수 있어. 쓸데없이 시선을 끄는 특성이나까 제거할 생각이야.”

“그렇구나. 불필요한 돌연변이라니…….”

불을 켤 생각도 않고, 지수는 한참이나 상자 속의 푸른빛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아름답네.”

. 그렇게 말하는 지수를 레이첼이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모스바나를 당장 심게 해 달라는 지수의 부탁을 레이첼은 거절했다. 그것이 숲을 일단 잠식하고 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수는 레이첼이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진짜 이유는, 레이첼이 숲을 실험실로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레이첼이 원하는 건 어디까지나 더 많은 식물들을 실험해 보는 것이고, 그러니 자신의 실험실이기도 한 프리 빌리지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중략)

지수는 밤새도록 바위에 앉아서, 숲을 가득 채운 푸른 먼지들을 보았다. 아름다움 외에는 아무 기능이 없는, 그러나 결국 제거되지 않은 푸른빛들을.

▶ [가]의 레이첼은 아름다움 외 아무 기능이 없는 푸른 빛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나]

절망을 노래하고파서

오늘 버림을 당하고파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파서

떠나자, 미련없이 떠나자.

폭력으로부터 떠나자

말의 횡포로부터 떠나자

약속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가풍(家風)으로부터 떠나자

㉔거짓 경제로부터, 거짓 학문으로부터

Note ㉔

레이첼은 예술의 무가치성을 강조한다.

Note ㉕

[나]의 노래는 현실의 거짓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다.

거짓 기교로부터

거짓 문학으로부터 떠나자.

떠나서 소곤거리자

소리가 모여 소리를 낳고

절망이 모여 절망을 낳고

버림이 모여 버림을 낳으면서

빈몸으로 덩굴자

⑦알몸끼리만 어울리자.

소리가 모여 정치를 낳고

절망이 모여 사랑을 낳고

버림이 모여 만남을 낳을 때까지.

▶ [나]의 노래는 현실에 대한 부조리함을 일깨우고 참여, 연대 의식을 강조한다.

Brain storm

1. 세 제시문의 공통점, 대논점은 무엇일까? 우선 '예술'을 짚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술'을 논한다는 것만 공통적일까? 세 제시문의 대립 구도는 '예술의 사회성, 현실 참여 vs 순수한 아름다움으로서의 예술'으로 대비된다.
2. (다)는 예술이 ①윤리적 실천을 지속해야 하며, ②현실에 눈감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3. (다)는 (가)를 비판할 것이다. 비판 논리를 다각화해 보자. 썸은 세 가지 논리를 만들었다.
 - 1) (가)의 예술은 '실험적 유희'에 불과하다.
 - 2) (가)의 예술은 ①윤리적 책임을 저버린 이기적인 예술이다.
 - 3) (가)의 예술은 ②현실과 유리된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
4. (다)는 (나)를 옹호할 것이다. 옹호 논리를 다각화해 보자. 썸은 세 가지 논리를 만들었다.
 - 1) (나)의 예술은 시대의 ①윤리적 공백을 메우는 저항이자 실천이다.
 - 2) (나)의 예술은 공동체의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되어 허위로 가득찬 현실에 대응하게 해 준다.
 - 3) (나)의 예술은 부조리한 ②현실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 주는 단초가 된다.

Note ⑦

참여, 연대, 공유, 공동체 정신을 도출할 수 있다.

How To Write 문제 1

예시 답안

①(다)는 시의 본질을 개인의 감정이나 언어적 기교가 아니라, 시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윤리적

실천에서 찾는다. 『시경』에 담긴 삼백 편의 시처럼, 시는 임금을 사랑하고 백성을 근심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두보의 시처럼 세속의 부조리에 눈감지 않고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②진정한 미학은 표현의 기교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윤리적 책임을 감당하려는

예술가의 의지에서 비롯된다.

③이러한 관점에서 (가)는 문학의 본질에서 한참 비껴나 있다. 이는 문학을 '자신의 이해에만 연연하는

④음풍농월로 경계한 기준을 어긴 처사다. ⑤레이첼은 기능 없는 아름다움을 흥미 삼아 조작하고

실험하며, 그 결과 탄생한 푸른빛은 실질적 효용도 없는 돌연변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 빛은 아름답지만,

더스트를 제거하지도, 생태계를 회복시키지도 않으며, 공동체를 위한 절박한 해법이 되지도 못한다.

오히려 레이첼은 그 발광을 비료의 부산물로 치부하며, 시선을 분산시키는 '쓸모없는 특성'으로 제거하려

한다. ⑥이는 감각적 환상에 몰두한 실험적 유희에 가까우며, 윤리적 책임과는 무관한 태도다.

반면 (나)는 바람직한 문학의 예로 평가된다. 이는 이 시가 단순한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시대의 억압과

허위에 대한 윤리적 저항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시인은 거짓 경제와 학문, 말의 폭력과 가풍의 굴레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며, 그 속박을 넘어선 자리에 절망과 버림이 다시 사랑과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한다. 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닌, 새로운 공동체 윤리의 요청이다. '알몸끼리 어울리자'는

개인적 상처를 감추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감정의 진실을 되살리는 방식이며, 그 진실은 '진실한 벗의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예술가의 책임 의식을 반영한다. (884)

How To Write

HTW ①

첫 문장은 문단의 얼굴이다. 핵심 소재와 의미를 모두 간결하게 짚어야 한다. 이 문장은 '시의 본질'이라는 (다)의 소재와 '윤리적 실천'이라는 핵심 의미를 모두 정리했다.

HTW ②

양괄식으로 (다)의 함의를 재정리했다. 첫 문장에 '공동체'와 '예술가의 의지'를 추가해서 작성했다. 첫 문장을 간결하게 썼다면, 후술 문장들로 제시문이 이야기했던 논리들을 추가로 설명하자.

HTW ③

평가 문단의 첫 문장에서 평가 값만 간결하게 제시했다.

HTW ④

(다)의 어휘를 직접 (가)에 적용하여 비판 표현을 만들었다. 때로는 제시문의 개념어, 고급어휘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설명력을 높일 때가 있다.

HTW ⑤

피평가 제시문인 (가)에 대한 요약이자, (가)의 문제점을 짚어가며 핵심 비판 문장으로 이어가는 맥락이다. 단순 압축 요약인가? 아니다, (가)의 부정적 뉘앙스를 부각시키며 글을 전개 중이다.

HTW ⑥

핵심 비판 문장이다. '실험적 유희'에 불과, '윤리적 책임의 부재'를 짚으며 (다)가 (가)에게 가할 핵심 비판 논거를 제시했다.

Just Memo

작성 Tip

1. 개요

1) 글 구성

1문단 350자	선택한 입장 요약
2문단 350자	선택한 입장 -> 반대 입장1 평가
3문단 350자	선택한 입장 -> 반대 입장2 평가

2) 입장 분류를 통해 대논점과 이항 대립 구도가 도출 된다.

3) 입장 분류를 한 뒤 평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면적 평가의 가능성은 적다.

2. 1문단(선택 입장 요약)

1) 문단이 길수록 첫 문장은 간명해야 한다. 두괄식, 간결체를 잊지 말 것.

2) 요약을 길게 해야 한다고, 단순 디테일들을 '나열'하면 안 된다. 차후에 사용할 논거들을 미리, 다각도로 build-up해 두어야 한다.

3) 성균관대와 마찬가지로 '입장 요약'이다. 따라서 두 제시문의 나열이 아닌 통합적 요약이 필요하다. 입장 전체의 요지를 통합적으로 요약하면 좋다.

3. 2, 3문단(비판)

문단 전개

1단계 : 피평가 제시문 요약

2단계 : 선택한 입장과의 대조 point 부각 → 부정적 뉘앙스 강조.

3단계 : 비판 → 논점을 다각화해서 비판하자.

기출 분석 문제 2

발문 분석

문제 2. [라]~[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 중 한 입장을 선택해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1,001자 이상~1,100자 이하: 배점 60점]

▶ 두 가지를 기계적으로 떠올리자.

- 1) 입장 분류의 대논점과 제시문 분류값은 무엇일까?
- 2) 350/350/350으로 써야겠다.

제시문 분석

[라] 심분 양보해서,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 즉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인정하고 받아들이 수 있다. 미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은 예술 작품의 중요한 의미이다.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을 보고 감동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도 예술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①그것을 창의적이라고 평가해 준 건 결국 사람이다. 인공지능 스스로는 그게 새로운지 모른다. 인간만이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을 보며 “와, 이거 새롭다!”라고 한다.

인공지능은 미적 가치를 평가하지 못한다. 자신이 탄생시킨 작품이나 화풍에 대해 생각을 품지도 못하고 자기 작품을 감상하지도 못한다. 인간 예술가는 다르다. 자신이 그린 작품 중 전시회에 걸고 싶은 작품 10개를 고르라고 하면 잘 골라낸다. 이건 좋다, 이건 별로다, 이건 왜 그랬다 등 이유를 대면서 스스로 평가한다. 인공지능은 자기 작품은 물론 다른 작품도 평가하지 못한다. 인공지능에게 미술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작품 중에 어떤 것을 좋아하며, 왜 좋은지 10개만 꼽아 설명하라고 하면 어떨까? 미술사 속 작품뿐 아니라 동시대에 창작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 작업은 불가능하다. 원리상 인공지능은 평가 기준을 자기 바깥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인간이 준 것이다.

②인공지능은 예술가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의 작품은 작가가 그 안에서 자기 의도에 도달할 때 만족된다.”라는 램브란트의 말을 참조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어떤 작가라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말이라. 미술사가 고프리지는 이 구절과 관련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됐다고 판단할 권리는 화가에게 있다.”라고 적절하게 해석한다. 작품에 서명하기 전에 작가는 충분히 숙고한다. 서명의 순간은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 즉 작품이 완성됐다고 작가가 승인하는 순간이다. 이 순간에 주목하면 그 어떤 예술 작품이건 작가의 평가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작품을 완성하는 건 작가의 권리다.

▶ 인공지능의 예술은 기능적이지만, 최종 평가는 인간의 몫이다.

[마] 현대 세계에서 예술은 보통 인간의 감정과 결부되어 있다. 우리는 예술가의 역할이 우리 내부의 정신적 힘들을 연결하는 것이고, 예술의 모든 목적은 우리를 서로 간의 감정으로 연결하거나 우리 내면에 어떤 새로운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다 보니 예술을 평가할 때도 그것이 청중에게 미치는 감정적 영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③예술이 인간의 감정에 의해 규정된다고 했을 때, 외부 알고리즘이 인간의 감정을 셰익스피어나 프리다 칼로*, 혹은 비운세**보다 더 잘 이해하고 조종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국 감정이란 것도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다. 생화학적 과정의 결과물일 뿐이다

Note

Note ①

현재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 1.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 결과물을 인정할 순 있다.
 - 2. 그러나 이를 인정하는 존재 또한 인간이다.
- 로 정리할 수 있다.

Note ②

글쓴이의 핵심 생각이 들어간 간결한 문장이다. 이 문장처럼, 첫 문장을 간결하게, 핵심을 담아서 작성하도록 하자.
30/70 법칙을 잊지 말자. 좋은 사례이다.

Note ③

(라)의 논쟁을 직접 받아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논술은 context. 제시문 간 관계를 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기계 학습 알고리즘은 우리 몸의 겉과 내부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실시간 전달되는 생체 측정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별 성격 유형과 바뀌는 기분을 알아낸 후 특정한 노래가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 영향을 미칠지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형식의 예술 중에서도 특히 음악이 빅데이터 분석에 가장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입력과 산출을 정확히 수학적으로 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력은 음파의 수학적 패턴이고 산출은 신경에서 일어나는 폭풍의 전기화학적 패턴이다. 수십 년 내에 기계 알고리즘이 수백만 가지 음악을 섭렵하고 나면, 어떤 노래를 입력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예측하는 법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중략)

맞춤 예술은 결코 인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두가 좋아하는 공통의 히트곡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당신밖에 모르는 곡에 맞춰 함께 춤추고 노래할 수 있겠는가? 사실 ④알고리즘은 맞춤 제작한 희귀곡보다 세계적인 히트곡을 만드는 데 적응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수집된 막대한 생체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무도장에서 모두가 미친 듯 몸을 흔들게 하는 글로벌 히트곡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의 본질이 정말 인간의 감정을 고양하거나 조작하는 것이라면, 그런 능력을 가진 알고리즘과 인간 뮤지션이 경쟁할 가능성은 없거나 희박할 것이다. 인간의 생화학 체계를 이해하는 능력에서 인간은 알고리즘을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아름다움이 실제로는 청중의 귀에 있다면, 그리고 고객이 언제나 옳다면, 생체 측정 알고리즘은 빼어난 예술 작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단지 예술 시장에 진입해서 많은 인간 작곡가와 연주자를 대체하는 것이 목표라면, 알고리즘은 곧장 차이코프스키를 추월할 필요는 없다. 브리튼니 스피어스**를 능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 프리다 칼로: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화가.

** 비온세, 브리튼니 스피어스: 미국 출신의 대중가수.

▶ 예술의 본질은 인간의 감정을 고양하는 것이다. 알고리즘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바] “부탁이 있습니다. 작가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창작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짜낼 것이 없는데 짜내려고 하면 힘만 들죠.” (중략)

“그런가요?”

“모래를 생각해도 좋아요. 모래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래를 짚을 때 액이 나온다면 그것은 모래 자체에 들어 있던 물이 아니라 모래 사이에 끼어 있던 이물질입니다. 어제 내린 빗물이거나 밤 사이에 밀려왔다가 바다로 다시 돌아가지 못해서 남은 바닷물인 거죠. 모래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이죠.”

“그래서요?”

“작가님! 일을 하시는 것으로 자신을 적당하게 묶는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오일을 짜기 위해서.”

“저는 차라리 모래라고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모래라는 말을 꺼냈다고 해서 모래라는 말에 너무 자괴감을 받지 마세요. 모래는 거르는 존재입니다. 잔모래는 작은 찌꺼기까지 거르고 굵은 모래는 빠른 시간 안에 큰 찌꺼기만 거르죠. 짜낼 게 없을 때는 걸러 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하고 하신 일이 그런 종류

Note ④

(라)와의 대조점이 잡힌다. (라)는 인공지능 예술 vs 인간에서 인간의 손을 든다면, (마)는 인공지능의 편을 들어준다. 이로써 (라)와 (마)의 논쟁 각자의 요지가 선명해진다.

아니었습니까? 화산 지형을 통과한 빗물이 해안에 모이면 얼마나 맑은 물로 변해 있습니까. 모래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읽은 소설은 모두 시가 썼다는 거죠?”

“시가 어디에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명령을 내리는데, 명령을 내리면 결과가 오니 참 신기하고 미칠 일이지요.”

“⑤제가 계속 일을 한다면 시가 뺀어 내는 찌꺼기를 걸러 내는 것이죠? 창의력 없이?”

“작가님을 실망시키려고 했던 말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태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수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작가님은.”

“그게 제 역할의 최대치라는 거죠? 모래 같은 인간, 정수기 같은 인간.”

“작가들은 시와 독자를 연결하는 ⑥메신저가 되는 거죠. 시에게는 변별 능력이 없으니까, 당분간 수많은 것 중에서 나쁜 것을 걸러 내는 ⑥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좋은 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고, 의미가 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래를 짜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자신을 좀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주어진 일을 능력 안에서 해내는 거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요.”

▶ 예술의 본질은 인간의 감정을 고양하는 것이다. 알고리즘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사] 연하장은 어떤가? 통상적인 조의문은 어떤가? 그런 인사장들도 정서를 표현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주 일반적인 정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로 제작되고 팔릴 수 있는 것이다. 인사장과 같은 것에는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슬픔을 느끼고 또 받은 사람들도 슬픔을 느낀다 해도, 우리는 대부분 그것들을 예술 작품이라고 부르기를 망설일 것이다. 왜 그런가? 그것들이 전달하는 정서가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낭만주의자들은 개인적 경험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데 높은 가치를 둔다. 그러나 인사장이 전달하는 정서적 경험은 개별화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우리는 예술가에게 판에 박히지 않은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말할 것을 기대한다. ⑦예술 작품은 예술가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개별화된 정서를 관객에게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예술가는 그냥 정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서를 스스로 검사한다. 예술가의 감정 상태는 초상화를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델과 같다. 예술가는 그것의 질감과 윤곽을 찾아내려고 고심한다. 예술가가 자기의 감정 상태를 반영할 때 그의 활동은 통제된다. 그는 그 감정 상태를 신중하게 탐색하고 그것을 표현할 적합한 언어, 색, 소리를 찾아내려고 한다. 만일 예술가가 시인이라면 그는 먼저 한 단어를 고른 후에도 그가 느끼는 바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단어가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것이다. 예술 작품을 제작하는 것은 분출이나 표출, 소리 지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명료화 과정이다. 무용가는 여러 동작들을 결합할 것이고 화가는 가장 어울리는 붓놀림으로 도화지를 물들일 것이다. 작곡가는 여러 가지 선율을 결합한 후 뒤로 물러서서 그것들이 적절한지를 물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예술가의 정서를 명료하게 하는 동시에, 그 정서는 예술가의 선택에 영감을 주고 또 정보를 제공한다.

▶ 예술의 본질은 예술가가 경험한 개별화된 정서를 판에 박히지 않은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Note ⑤

작가는 본인이 시의 산출물을 정리하는 필터로 전략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Note ⑥

편집자는 작가를 설득하기 위해 작가의 역할이 메신저이자 파수꾼, 즉 시의 산출물을 정리하고 전파하는 역할이라면서 지켜세우고 있다.

Note ⑦

(바)는 (마)와 마찬가지로 예술의 본질은 감정을 고양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전제 하에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결론은 다르다, (바)는 인공지능이 아닌, 예술가의 감정을 중시한다.

Brain storm

1. 네 제시문의 쟁점, 곧 대논점은 무엇일까? 우선 '예술'을 짚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술'을 논한다는 점만 공통적일까? 네 제시문은 '예술가와 인공지능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2. 네 제시문을 입장 분류 해보자.
(라)와 (사)
(마)와 (바)를 묶을 수 있다.
3. 대논점에 비추어 그룹 키워드를 부여하자.
(라)와 (사): 예술의 주체는 인간이다.
(마)와 (바): 알고리즘이 더 큰 지위를 갖는다.
4. 이제 특정 입장을 선택하여 상대 입장을 비판하자. 이 교재는 (마)와 (바)를 옹호하여 (라)와 (사)를 비판 할 것이다. 우선 (마)와 (바)를 옹호할 논리를 만들자.
1) 예술적 감흥에 대한 기계적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예술은 감정의 고양이라는 예술 본연의 목적을 수행할 것이다.
2) 예술가는 AI의 산출물을 검토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더 큰 예술적 성취를 가져올 수 있다.
5. (라) 비판 논거를 만들어보자.
1) 예술가의 창조성을 강조하는 (라) 제시문은 현실의 변화를 도외시켰다.
2) 예술가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예술적 감흥을 느끼는 근거에 대한 보편적인 분석을 건너뛴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유희로 예술을 전락시킬 수 있다.
3) AI와 인간의 산출물이 같다면, AI의 산출물이 효율적이며 대중들의 기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6. (사) 비판 논거를 만들어보자.
1) (사)는 지나치게 개별화된 정서에 주목한다. 이는 대중의 보편적 정서와 유리된 예술관의 반영일지 모른다.
2) 알고리즘이 독자적으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현재, 예술의 본질을 정서적 고양이 아닌 인간의 행위로 본 (사)의 사고 방식은 인간 중심적이다.

How To Write 문제 2

예시 답안

①[마], [바]는 예술의 창작과 수용에서 인간 예술가보다 알고리즘이 더 큰 지위와 역할을 가진다고 본다.

[마]는 예술의 본질이 인간의 감정을 고양하는 것이라면, 그런 예술은 인간 예술가보다 알고리즘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알고리즘이 인간 음악가보다 청중이나 고객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하여 인간 예술가보다 더 빠른 작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바]는 작가를 찌꺼기를 걸러내는 모래나 정수기와 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시와 독자를 연결해 주는 메신저이자 파수꾼 역할을 하거나, 좋은 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지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이에 비해, [라], [사]는 예술의 창작과 수용에서 인간 예술가의 위상을 더 중시하는 입장이다. [라]는

②인공지능도 어느 정도 창의성이 있거나 감동을 주는 예술을 창작할 수 있다고 본다. 인공지능은 예술의 미적 가치를 평가할 수 없고, 작품이 완성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적 요소나 작품의 완성도 등 예술에 대한 최종 평가는 인간 예술가의 몫이라고 본다. 그러나 [마], [바]의 입장에서 볼 때, ③[라]는 작품의 미적 가치나 예술가의 창조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알고리즘이 다양한 예술을 창작하고 있는 현실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예술가 개인의 선택만을 강조하면 예술의 다양성과 수용의 범위에 제한이 따른다는 점 또한 간과하고 있다.

[사]에서는 예술가가 경험한 개별화된 정서를 판에 박히지 않은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을 예술 작품으로 보고 있다. [사]는 예술의 창작과 수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예술가 자신의 정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마], [바]의 입장에서 볼 때, [사]는 예술가의 개별화된 정서를 지나치게 중시함으로써 대중들의 보편적 정서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인간 예술가의 노력 없이도 알고리즘이 많은 작품을 생산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사]는 예술을 인간만의 전유물로 간주함으로써 예술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1036자)

How To Write

HTW ①

1문단의 역할은 본인이 선택한 입장을 요약하는 것이다. 첫 문장에서 제시문 기호 및 그룹 키워드를 제시하면 된다.

HTW ②

피평가 제시문을 요약한 문장이다. 이때 피평가 제시문의 평가값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뉘앙스를 살려서 요약해 주자. 문제 1 예시 답안과 달리, 문제 2 예시 답안은 피평가 제시문의 요약을 부정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문제 1 예시답안처럼 피평가 제시문의 부정적 뉘앙스를 살리며 논의를 전개하자.

HTW ③

핵심 비판 문장이다. 예시 답안은 비판 논거를 두 개로 짚었다. 좋은 시도이다. 하지만 이 교재를 읽은 수험생이라면 3~4개의 비판 논거를 짚으려 노력해 보자.